

고교학점제·대입정보 ‘한 눈에’

시교육청, 광주진로진학박람회
16~17일 이틀간 DJ센터서 개최
전국 144개 대학 197개 부스 운영
대입제도 이해·수시전략 등 특강

광주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입 대비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오는 16~17일 이틀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올해 열리는 박람회 중 최대 규모인 전국 144개 대학이 참가해 197개 부스를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고교학점제 박람회와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에서 입학사정관들과 입시전문가들이 대입진학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입시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을 통해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진로·진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약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8일 제1호 공약이자 1호 결재였던 ‘다양성을 품은 광주학생 실력 향상’ 관련 주요 방안의 하나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제시를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진로진학박람회를 시작으로 ‘다양성을 품은 진로·진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개막행사로는 ▲EBS 대표강사 윤운구 선생님이 진행하는 ‘고교생을 위한 교과학습법 및 대입제도 이해’ 특강 ▲대교협 대표강사 김창목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시전형 대입전략’ 특강을 실시한다.

이어 대학입학사정관이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도 진행한다.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44개 대학 197개 부스에서 대입진학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진학전문교사 60명이 현장에서 고3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1대1 수시 대입진학상담을 실시하고, 대학입학사정관과 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대학, 광주전남지역대학, 전문대학

공동 대입설명회와 각 대학별 설명회, 음악·미술·체육계열 설명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진로·진학상담 온라인 밴드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입 관련 묻고 답하기 행사도 이어진다.

고교학점제박람회에서는 52개 고등학교 선택형 교육과정 소개,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에 대한 1대1 상담, 지역대학 13개 대학 35개 학과가 참가하는 전공 설계, 직업계고 전공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해 미래지향적이고 실력있는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진로진학박람회와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통해 진로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더욱 영글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행사 온라인 실시간 영상은 시교육청 유튜브와 광주진로진학박람회 누리집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환준 기자



시교육청 교직원 연수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DMZ! 평화의 발로 걷고 가슴으로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현장 체험 연수를 운영했다. 연수단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인 대전 산내 골령굴, 전쟁의 고통과 비극이 서린 노근리 평화공원, 분단의 아픔과 긴장이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탐방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대-중국 남창이공대학, 학술교류 협약

전기전자공학 교과목 공동 운영

광주대학교는 최근 중국 남창이공대학과 학술교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대에 김동진 총장과 김갑용 대학원장, 김황용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남창이공대학에서는 부소연 총장, 등영준 부총장 및 전자통신대학장, 조파 부총장 및 국제교류대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4년제 전기전자공학 전공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우수한 교육자원 공유, 양질의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계획, 양성방안, 교과과정 설계 등 상호 협력해 구축하며 교원 파견 등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 브랜드 평판 전국 10위...호남 1위

조선대학교가 대학교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 분석에서 전국 10위·호남권 1위를 기록했다.

12일 조선대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11일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대학교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진행, ‘대학교 브랜드 2022년 7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선대는 참여지수 76만 1,793개, 미디어지수 60만 1,066개, 소통지수 30만 7,193개, 커뮤니티지수 129만 87개로 총 296만 138개의 브랜드

평판지수를 기록해 100개 대학교 브랜드 중 상위 10위에 올랐다. 지난달 브랜드평판지수인 191만7862개와 비교하면 54.35% 상승했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100년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선도 대학으로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를 가진 대학으로 목표점을 두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 공동연구팀.

‘360도 촬영’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 개발

지스트-서울대 공동연구

이미지의 왜곡 없이 물속과 물 밖에서 360도 전방위로 사진·영상 촬영이 가능한 초소형 수륙양용 카메라가 개발됐다.

기존의 360도 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VR 기기 등 다양한 영상 장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팀과 서울대 화공생명공학부 김대형 교수팀이 공동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이날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온라인에 발표됐다.

현재 360도 카메라는 경우 이미지 왜곡에 대한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각 카메라의 센서 정보를 연결하는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팀은 편평형 마이크로렌즈를 이미지

센서와 결합하고, 1개의 마이크로렌즈와 1개의 포토다이오드로 구성된 광학시스템을 지름 약 2cm인 공 모양의 구형 구조물 안에 200여 개를 집적해 왜곡이 없는 광각 카메라를 개발했다. 특히 200여 개의 포토다이오드를 구형으로 배치하고, 각 포토다이오드에 편평형 마이크로렌즈를 배치해 각각의 센서 정보를 연결하는 후처리 및 광학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편평형 마이크로렌즈를 배치할 경우 낮아지는 굴절력을 향상시키고 수차를 보정하기 위해 굴절률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4개의 렌즈로 구성된 구배형 마이크로렌즈를 제작했다. 그 결과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물속과 물 밖에서 영상의 화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기존 광각 카메라보다 이미지 왜곡이 감소함을 이론적·실�험적으로 규명했다. /최환준 기자

도교육청, 중3 대상 고교학점제 사전교육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내년에 첫 적용되는 현 중3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고교학점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3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미리 접해볼 수 있는 워크북 보급에 앞서 지난

7일과 11일 동부권(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서부권(전남교육연구원)으로 나눠 진로진담교사 및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는 능주고등학교 정성호 교사가 강사로 나서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개요, 미리 알아보는 고교 교육과정, 전남 준비 상황, 전남고교학점제 미리보기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해 참여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환준 기자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